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1)(10/30/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2 장 거룩한 십자가라는 왕도, 5-6 절

눅 24:26 -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시 51:12 -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빌 2:17-18 -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고후 9:7(새번역) -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5.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당신이 원하던 목적지, 즉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게 될 바로 그 곳, 곧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여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져야 할 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온 십자가를 떨쳐내 버린다면, 이번에는 아마도 더 무거운 십자가가 머지않아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6.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 십자가와 환난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없으셨던 적이 단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셨습니다(눅 24:26). 그런데도 왜 당신은 거룩한 십자가라는 이 왕도를 버려두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해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질 때의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것은 아마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다른 말로 기꺼이(“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혹은 ‘흔쾌히’) 지는 마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가지는 마음임을 알게 된다. 다윗은 시 51 편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시 51:12 -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말한 “자원하는 심령”은 ‘부드러운 마음’ 혹은 ‘자발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받고 회심한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다. 빌 2:17-18 -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고후 9:7(새번역) -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기쁨으로 종처럼 섬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성부 하나님은 그러한 성자 예수님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 3:16-17 -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만약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역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와 함께 주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마음과 자세는 내가 져야하는 십자가라면 피하지 않고 담담히 지겠다는 마음이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막상 그것을 져야할 순간이 왔을 때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아왔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였다.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마가는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의 장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자신이 져야하는 십자가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1 차 선교 여행이었다. 그러나 마가는 선교팀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힘든 사역의 여정을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렸다. 이 사건을 통해 마가는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었고, 나중에 2 차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의 합류 여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

마가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십자가는 지기가 쉽지 않다. 십자가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 16:24).**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6).**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내가 져야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져야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완수해야 할 주님의 부탁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있는가? 아니면 피하고 외면하고 때때로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가?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지고 가야할 십자가와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담담히 지고 완수해 나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2. 혼돈 속에 있는 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영적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박해의 위협을 받으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